

데이브 매튜슨 박사,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

세션 5, 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지연과 신학적, 목회적 함의

© 2024 데이브 매튜슨 (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Dr. David Ma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세션 5,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의 지연과 신학적, 목회적 의미.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곧 계시 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히 이 책은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1장과 22장에서 끝나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까웠음을 언급하며, 책의 마지막인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우리는 예수 자신을 포함하여 신약성서의 다른 진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거나 곧 올 것을 예상하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 자신의 진술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러한 진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가닥을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가 곧 과 가까움 을 나타내는 텍스트에 뛰어들 때 보통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때로는 부적절하고 잘못 사용하여 요한이 예측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끝은 오지 않았으므로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체를 강조합니다. 특히 몇 가지 텍스트가 있지만 계시록의 전체 구조에도 임박함, 가까움, 곧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연이 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 한 가지 결론은 John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모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사실 나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까움, 곧 , 지체라는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재적이고 지체된다는 주제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

그럼, 이 구절들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중지 지점, 그리고 아마도 지연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광범위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과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사실 다섯 번째 인입입니다. 일곱 가지 심판 중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일곱 가지 심판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일곱 인이고, 다음은 일곱 나팔이고, 마지막은 일곱 대접입니다. 8장과 9장에는 나팔이 나오고, 16장에는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의 형태로 된 일곱 가지 심판 중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5장을 백업해 보면 5장에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아마도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고, 구속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발견되었는데, 그 양은 5장에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유일한 양이었습니다. 5장에 따르면 두루마리에는 일곱 개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서 각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봉인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6장 9장부터 11장까지, 그 사람은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받은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타협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는 충실했고, 일부는 충실할 것이며 순교, 즉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되 주여 거룩하고 참되신 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까지 언제까지니이까? 이에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와 같이 믿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몇 가지 관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표현이 얼마나 긴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시편과 선지자서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여러 본문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John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과 함께 뿌리를 둔 문제입니다.

따라서 John과 그의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 이 부르짖음은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것은 압제자들의 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즉 요한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타협을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옹호해 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외침은 또한 지연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빨리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은 얼마 동안 지체되었는지,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빨리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을 때 이러한 지연 징후에도 곧 임박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

즉,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박하다는 요소가 있지만 확실히 지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을 주목하세요. 요한은 독자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고 조금 더 쉬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죽게 될 동료 종들과 형제 자매들의 수가 차기까지 임박한 요소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미리 결정된 숫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나 개념은 묵시적인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요한이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던진 환상의 기록입니다.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 구약이나 신약에는 없는 다른 묵시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 예를 들어 에스라 4서로 알려진 책의 본문인 에녹 1서, 바룩 2서의 또 다른 본문은 끝이 오기 전에 채워져야만 했던 정해진 숫자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John이 실제로 그 숫자가 무엇인지 알았든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했든 그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연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존은 그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것이 2,0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체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끝내시고 그들이 겪은 고통, 특히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가져오기 전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그들과 나는 그들의 적들이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John은 이제 그들에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잠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의 강조점은 지체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 기간의 지연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요청입니다.

곧 이라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시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경계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6장의 다섯 번째 인은 요한이 지체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John은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2,000년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요한은 단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체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복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지연 가능성의 맥락에서 그것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은 지체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측면은 하나의 특정 텍스트에 그다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지연에 대한 다른 측면은 책의 구조와 그것이 여러 위치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문학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자주 독자를 결말로 이끌거나 결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뒤로 물러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선형적으로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거의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저자가 여러분을 끝까지 또는 적어도 끝의 문턱으로 데려갔다가 물러섰다가 다시 그 일을 하고 또 물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는 일종의 중지 및 시작, 시작, 중지 및 지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는 임박함과 지연 사이의 신학적 긴장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내가 곧 오리라는 언어에서 발견한 긴박함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다섯째 인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지체의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5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어린 양의 환상은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며, 그분은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제시한 두루마리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심판과 구원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딜레마는 누가 이것을 제정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움직이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5장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 계획이 다소 진보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끝까지 데려갈 명확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글쎄, 그게 문제의 일부야. 비록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들이 다소 깨끗하고 명확하며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대는 실제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좌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6장과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저자가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6장의 끝 부분에 있는 여섯 번째 인으로 인해 지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가 여섯째 봉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격렬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가 공기로 만든 베옷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달 전체가 피처럼 변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갈라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되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느니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6장에 이르렀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 아직 가야 할 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Seal Six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썰 7은 실제로 지연되었습니다. 8장에 도달할 때까지 7장을 봉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러분을 종말의 문턱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있고 여섯째 인의 6장의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또 다른 인이 있고, 가야 할 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주님의 날의 도래를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물러나면 더 많은 자료가 생깁니다.

또 다른 봉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곱째 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도 8장까지 연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에 대한 기대는 다소 좌절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작가는 자신의 작업 구조 자체에 지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8장과 9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음 7장의 나팔 소리를 봅니다.

우리는 이미 8장이 마침내 6장에서 시작된 시리즈인 7번 봉인을 풀면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몇 장이 지나고 7장에서 약간의 내용이 추가된 후 마침내 7번 봉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곱 개의 나팔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나 심판이 창조물에 선포됩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 번, 9장에 이르면 흥미로워집니다. 처음 네 개의 나팔은 다소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이 빠르게 발생하고 진행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트럼펫에서 저자는 속도를 늦추고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9장은 트럼펫 번호 6으로 끝납니다.

일곱 번째는 어디에 있나요? 글썄, 당신은 11장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연, 더 많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흥미롭게도 10장과 7절 자체가 7번 나팔의 출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11장 끝이 아니라 이미 10장에 왔는데, 6번 나팔과 7번 나팔의 중간에 있습니다 .

7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요한은 이 천사 같은 존재, 이 거대한 천사 같은 존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이 천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거 흥미롭네요. 아직 10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직 12장이 더 남았거든요. 우리에게 아직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더 이상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1장 끝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 다음 16장에서는 그들이 담대한 판단을 소개하고 그것을 실제로 얻습니다. 당신은 일곱 가지의 대담한 판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16장의 끝에서 당신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16장은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투를 소개하지만 단지 군대가 모였다고만 할 뿐 그 전투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기대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간 자료가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과 로마와 그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과 11절에서는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제 그분은 19장과 20장에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는 일련의 다양한 제거 장면이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나라들, 그를 대적하는 땅의 군대와 왕들(19장), 두 짐승(19장), 사탄(20장). 21년과 22년에 새로운 창조물의 도래를 위해 길을 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발생하지만 그것은 일련의 정지와 시작, 지연, 좌절된 기대 후에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John의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지연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문학적 지연은 임박함과 지연 사이의 신학적 긴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곧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장에서 내가 22장 7절, 12절, 20절에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 일들이 책의 모든 내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그러나 이제 우리는 특히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다섯째 인의 형태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에서 요한이 곧 의 강조 와 지체의 가능성의 강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John이 자신을 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John이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단순히 그가 이미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빨리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한은 2,000년의 지연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체될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도 모르고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애에 다시 오실지, 아니면 약간의 지연이 있을지 등의 시나리오에 비추어 생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고, 지상 열방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며, 로마 제국과의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임박함과 지연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요한이 결코 도달하지 못한 종말을 예언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요한계시록 전체나 요한계시록의 일부 본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신학적,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파루시아와 신약성서의 가르침이 지연되는 문제의 몇 가지 함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둘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즉, 우리가 논의한 구절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명백한 지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관점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미치는 보다 목회적이거나 실제적인

함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자. 나는 단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기독교인과 심지어 불신자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경 전체의 신뢰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철저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힌트만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신뢰성이다.

서문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나는 이 문제로 인해 신앙에 위기를 겪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특정 저자들, 심지어 예수님 자신과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틀렸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약성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뢰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문제에서 그들이 틀렸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뢰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제 우리가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 점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틀렸는지 아닌지, 적어도 그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 상당히 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적어도 다른 문제에서도 그들이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뢰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련의 강의 전반에 걸쳐 내가 제안한 방식이나 심지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문에 접근한다면 신약성서의 저자들이나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일부 본문이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을 전혀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아마도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변형 사건이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AD 70년과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언급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실패한 예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세상을 끝낼 마지막 왕국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왕국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국은 미래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때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완성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표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경계심과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같은 사실이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살아 있을 것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Paul은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구조, 즉 나라가 온 땅으로 나아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바울 역시 결코 도달하지 못한 종말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는 틀렸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때의 삶과 같은 긴장 속에서 살면서 최종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그의 생애 중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서신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¹서, 그리고 이 범주에 속하는 일반서신의 다른 진술들은 그들이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렀고 다른 어떤 책보다 요한계시록이 임박함과 지연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존은 자신이 전혀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것이 이미 균형을 이루었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24장 말미에 충실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임박함과 지체를 균형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들이 틀렸다고 결론 내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틀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위기를 촉발시켰고, 일부는 복음에 완전히 등을 돌릴 정도까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른 저자들이 그토록 틀렸다면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장벽은 아니며, 분명히 사과하자면 악의 문제와 같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만드는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추종자들의 가르침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이 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를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인 신학적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이다. 특히 임박함과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합합니까?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비록 생애 중에도 곧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길게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시간, 창조물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길게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의 일부가 또 다른 긴장, 즉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긴장감만 보면 신약성서 저자들은 당혹감 없이 임박 함과 지체,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나란히 놓고 있다. 한편으로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돌아서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지체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재림 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특히 인류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지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단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발견되는 긴장, 즉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긴장에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고려하고 이에 응답하고 고려하시는 그분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박함과 지체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시간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응답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의 재림을 지연시킴으로써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임박함과 지체 사이의 긴장이 성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온갖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지 여부를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임박함, 즉 그리스도의 가까움과 그분의 재림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도록 속담이나 문자 그대로의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값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오심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이에 대비하고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임박함과 지체 사이의 긴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긴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오심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류의 반응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임박함과 지연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우리가 두 시나리오 중 하나에 대비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시간이 다 있다고 생각할 수 없고, 끝까지 삶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즉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지체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경솔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요점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며, 사례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일과 지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경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른 누구의 모순을 반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실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애 중에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지연될 수 있으며 우리는 둘 중 하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다른 신학적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만두겠습니다.

성경의 신뢰성과 하나님의 주권, 지연과 임박 사이의 긴장이 이 두 가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러나 목회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첫 번째 신학적 결론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신뢰성과 확신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에 접근한 방식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옳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문에 대한 나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고 이제 그 본문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당신의 결론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번의 강의에서 살펴본 본문을 예수와 신약성서 저자들의 추종자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패한 예측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바람직합니다.

대신, 우리가 말한 것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거나 실패한 예측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견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오시는 그 때를 모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인자도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시는 때를 모르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출현을 예측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후자의 경우가 사실이 아니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해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본문들이 그들의 문맥에서 이해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과 신약성경 문서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완전한 신뢰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다른 결론은 특히 신약성서의 지면에 대한 강조가 모든 날짜 설정을 피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며,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은 제가 제기하고

싶은 세 번째 문제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체하는 데 좀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예측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아주 잘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일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설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너무 많은 실패한 예측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긴박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관점을 취하여 날짜를 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기술 발전, 세계의 정치적 발전, 자연 재해를 살펴보고 이를 성경의 예언 텍스트와 일치시킬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가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 날짜도 정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문 밖으로 나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때는 80년대 후반, 1980년대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문 사이에 이런 작은 팜플렛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988년에 다시 오실 88가지 이유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왔다가 지나간 것은 그 해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은 다시 계산해서 적어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시 계산해서 다른 날짜를 생각해 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나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몬태나 남서부 시골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 어느 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라디오 방송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차 걸프전 사건에 관해 토론하는 예언 전문가 그룹의 방송을 듣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그것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이 저와 데이트하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에 제가 이 라디오 방송국을 듣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적 예언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러한 사건에 비추어 성경적 예언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죄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글쎄요, 그래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번 걸프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사담 후세인에서 일어난 일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였을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논의된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바로 모퉁이를 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중 한 사람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든 귀중품, CD, 401ks 등 모든 것에 저축과 현금을 비우고 그 돈을 주님의 사업, 아마도 그의 사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충고를 아무도 따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역시 지연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절박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애에도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지연 문제와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은 다른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날 때 끝을 예측하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즉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저축한 돈과 돈을 모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연의 측면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수년, 수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임박하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안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함과 지연에 대한 신약성서의 강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에 즉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질서있게 하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돕는 중요한 목회 목적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동안 지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실패한 예언이 영속되고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랜 역사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체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따라서 더 이상 낱자 설정이 없습니다.

모든 낱자 설정을 피하십시오. 제가 매우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은 세 번째 문제, 즉 실천적이고 사목적인 의미는 거룩한 삶의 필요성입니다. 즉, 우리는 임박함과 지연의 문제를 신약성경에서 기능했던 방식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들이 끝이 언제 올지 예측하거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측하기 위해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외 없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결같고 끈질기게 나오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재림이라는 점이며, 지체될 가능성도 언제나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긴급함, 즉 현재를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긴급성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긴급함. 특히 우리가 흔히 종말론과 연관시키는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좋은 시간표를 만들거나 사건들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경건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로마 제국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목표는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어린양만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사용하여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예수와 신약성서 저자들이 종말을 예언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았고 실제로 종말이 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 본문의 주요 강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끝납니다. 새 창조,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새 창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왕과 제사장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22장 5절).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과 5절은 우리가 이미 제사장 나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창조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지만 이미 제사장 왕국이라면 현재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현재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사는 방식, 생활 방식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합니까? 그러한 가치를 이미 현재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만간이든 지연이든 신약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동기와 원동력으로서 우리 삶에서도 작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삶, 즉 완성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일지 현재의 반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일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자 유일한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David Mathewson 박사의 질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어디로 오나요? 다섯 번째 모임, 계시에 있어서 파루시아 의 지연과 신학적, 목회적 함의.